일심이 만법, 만물의 발원지



新 불교사자성어

㊺ 만법귀일(萬法歸一)

천 년 전 일이다. 어떤 수행승이 조주선사에게 질문했다.

"선사, 만법(모든 존재)은 하나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萬法歸一, 一歸何處)?" (이 수행승은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만법귀일의 발단이다. 이 날카로운 수행승의 질문에 조주선사는 엉뚱하게도 "내가 청주에 있을 때 베옷 한 벌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무게가 일곱 근이더라."라고 대답했다. 만법귀일, 일귀하처도 어려운데, 조주선사의 답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다. 솔직히 말해 해석은 커녕 추측도 불가능하다. 정답 없는 정답.

'만법귀일(萬法歸一)' 은 '모든 존재는 하나로 돌아간다' 는 뜻이다. 선불교의 세계를 드러낸 선어(禪語)로 '일귀하처(一歸何處)',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와 환상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 사자성어이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필자가 20세 때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했다. 무언가 인생에 대한 철학적인 주제나 질문 같은 것을 던져 주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죽게 되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내 나름대로는 기막히게 풀이하고 나서 오랜 시간 그 말이 가슴에 맴돌았다.

'만법귀일' 은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은 '일귀하처' 였다.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 물론 그에 대한 답은 아직도 모른다. 하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알려고 덤벼들지 않는다. 영원한 주제로 문제의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만법(萬法)은 '모든 것, 모든 존재' 를 가리킨다. 만(萬)이란 꼭 1만 개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많다' 는 의미로 '모든 것' 을 가리킨다. 만수무강, 만사형통도 '만세를 살라' 는 말이라기보다는 죽지 말고 오래 무한하게 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의 만상도 그런 뜻이다. 만법 속에는 유형무형의 모든 것, 모든 존재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귀일(歸一)은 귀결처, 종착점이다.

'모든 존재는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는 것은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평소 철학적 사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봤던 주제일 것이다. 인간, 모든 존재(萬法)는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것일까(歸一)? 존재의 귀착처. 그것은 곧 존재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모든 철학의 주제이며 시작이다. 선(禪)도 사실은 존재, 실존에 대한 탐구이다. 그 주제가 바로 만법귀일, 일귀하처이다.

선은 무심, 무념이다.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다. 고타마 싯다르타도 모든 존재를 관찰한 끝에 제행무상이라고 했다. 제행무상은 부처님이 발견한 존재론인데, 이 '제행무상' 의 진리처럼 형체를 가진 존재는 영원하지 않다. 어린 아이가 70년 흐르면 백발이 되고 그 백발은 무(無)로 변하고 공(空)으로 변한다. 일체는 모두 공이다.

〈대승기신론〉에 따른다면 '만법귀일' 은 '일심(一心)' 즉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심이 만법, 만물의 발원지이다. 일심에서 존재, 비존재가 탄생한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삼계유심(三界唯心), 만법유식(萬法唯識), 일체유심조라고 했다. 만법 즉 이 현상세계는 모두 우리의 의식, 인식 세계의 작품인 것이다. 결국 일귀하처의 귀결처도 마음, 즉 일심(一心)일 수밖에 없다. '진공은 공이 아니고 유(有)' 라고 하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일체는 마음으로 귀착하고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만물, 삼라만상이 생성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은 두 번 쉬고, 설두는 제자리



격절록 강설

㊺ 제17칙 덕산작마(德山作麼) 1

[古則과 着語]

擧, 僧問德山 "從上諸聖 向什麼處去" (何不與本分草料) 山云 "作麼作麼" (賺殺一船人) 僧云 "敕點飛龍馬 跛鱉出頭來" (已是落他繞纜了也) 山便休去 (此機最毒) 至來日 山出浴 其僧過茶與山 山撫僧背一下 (且道 他意作麼生) 僧云 "這老漢方始瞥地" (前箭猶輕後箭深)

어떤 스님이 덕산(德山, 덕산선감)에게 물었다.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어째서 본분초료(本分草料)를 주지 않는가?]

덕산이 말했다. "뭐? 뭐?" [사람을 몹시도 속이는구나!]

스님이 말했다. "칙명으로 비룡마를 점검하려 했는데, 절름발이 자라가 나왔군." [이미 그의 올가미에 걸려들었다.]

덕산이 바로 쉬었다(=그만 두었다). [이 기봉(機)이 가장 독하다.]

다음날 덕산이 목욕하고 나오는데 그 스님이 덕산에게 차를 건네자, 덕산이 스님의 등을 한 번 어루만졌다. [자, 말해보라! 그의 뜻이 무엇인가?]

스님이 말했다.

"이 노장이 이제야 막 눈치를 챘군." [앞의 화살은 가벼웠지만, 뒤의 화살은 깊이 박혔다.]

덕산이 또 쉬었다(=그만 두었다). 〈이 말은 원문에는 없으나, 문맥 상 역자가 첨가하였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然精金百煉 須要本分鉗鎚 (錯 下名言) 德山既以己方人 這僧還同受屈" (一狀領過) 以拄杖一畫云 "適來公案且置 (看雪竇有什麼伎倆) 從上諸聖 向什麼處去" (或有箇掀倒禪牀 又作麼生) 大眾擬議 雪竇一時打趁 (打云 你替大眾喫)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쇠를 충분히 단련하려면 모름지기 본분의 집게와 쇠망치가 있어야 한다. [틀렸다! 하지만 명언을 했다.] 덕산은 자기 자신에 비추어 남을 평가했으니, 이 스님도 함께 굴욕을 받아야 한다." [한 장(판결문)에 처리해버려라.]

(그리고는) 주장자로 한 획을 그리며 말했다.

"좀 전의 공안은 놔두고, [설두에게 무슨 기량이 있는가를 보라!] 모든 옛 성인은 어디로 갔는가?" [혹 선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또 뭐하는 거야?]

대중이 머뭇거리자, 설두가 한꺼번에 쳐서 아버렸다. [(선상을) 치고 말했다. "그대(설두)가 대중을 대신해서 방망이를 맞아야 한다."]

[評唱 1]

師云. 德山尋常打風打雨 為什却不打這僧. 且道 這僧如何. 可謂三級浪高魚化龍 癡人猶戽夜塘水. 你道這老漢肯做 這般去就麼.

덕산은 평소에 (방을 하기를) 바람을 치듯 비를 치듯 했는데, 어째서 이 스님은 치지 않았는가?

자, 말해보라! 이 스님은 어떤 사람인가? 가이 "삼단 물결을 뛰어오른 물고기는 용이 되어 갔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도 두레박으로 밤 연못의 물만 퍼내고 있다(설두 스님이 게송 구절로 자주 쓴다)"고 할만하다. (그런데도) 그대들은 이 노장이 긍정했기에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這僧却道 "敕點飛龍馬 跛鱉出頭來" 這裏合打. 且道 為什麼德山不打 便休去. 是以殺人不用刀 這箇全無傷鋒犯手處. 若是活漢方可見得 若不是頂門具眼底 直下卒難摸索.

이 스님이 말하기를 "칙명으로 비룡마가를 점검하려 했는데, 눈 먼 자라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서 마땅히 쳤어야 했다. 자, 말해보라! (그런데) 어째서 덕산이 치지 않고, 바로 쉬었는가(그만 두었는가)?

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데 칼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이렇게 전혀 칼끝도 상하지 않고 손도 범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활발발한 사람(活漢)이라면 볼 수 있겠지만, 만약 정수에 안목을 갖추지 못한 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 더듬어 찾지 못할 것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㊺ 이해의 길 25

대승에서는 번뇌가 보리?

불교에 입문하여 처음으로 사찰 수련회에 참여하였다. 명상 시간이 돌아왔는데, 지도법사는 5분 동안 호흡에 집중하기도 힘들 것이라 했다. 온갖 번뇌, 망상이 방해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깟 5분 집중하는 일이 뭐가 힘들지 하는 생각으로 명상에 들었다. 정말 그랬다. 호흡에 집중하려 했는데, 어제 먹은 짜장면이 생각나더니 갑자기 어린 시절 친구와 말다툼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명상하는 동안 수많은 망상들이 떠올랐다 사라진 것 같다. 그때 알게 되었다. 나란 존재가 번뇌, 망상 덩어리라는 사실을.

번뇌, 망상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나 절, 염불 등의 수행을 통해 이를 제거해야 열반, 마음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부파불교에서는 번뇌를 끊고 진리를 깨친다는 단혹증리론(斷惑證理論)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 같은데, 대승에서는 심하게 태클을 걸었다. 번뇌는 끊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자리가 보리(菩提), 곧 진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어찌 된 것일까?

대승불교는 중생이 아니라 붓다의 관점에서 설한다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번뇌를 끊고 깨달음으로 향해가는 것이 아니라, 깨친 자리에서 바라본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번뇌가 곧 보리(煩惱卽菩提)' 라는 것도 바로 이를 보여주고 있다. '생사가 곧 열반(生死卽涅槃)' 이라는 입장이나 '중생이 곧 부처' 라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다. 생사와 중생은 버리거나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 열반, 부처와 '하나' 인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상에 눈뜨는 것이 대승의 목표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연꽃이다. 연꽃은 결코 허공에서는 필 수 없다. 그 청정하고 아름다운 꽃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진흙 밭이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생각하여 피하려고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열반, 보리, 붓다라는 맑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것이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이처럼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 중생과 부처가 본래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승적 사유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내가 서있는 자리를 버리려는 소승적 태도를 대승에서는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개봉해 큰 화제를 모았던 영화 〈달마야 놀자〉는 이러한 대승적 사유를 유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이야기는 세속적으로 가장 오염된 깡패들이 성스럽고 청정한 사찰에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그곳 승려들은 주먹패들이 수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려 한다. 이를 위해 다섯 번에 걸친 내기를 하지만, 결국 3대 2로 승려들이 지고 만다.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을 내보내려는 시도는 계속된다. 이러한 수행승들의 모습은 번뇌를 버리고 진리를 깨치려는 소승불교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눈뜬 스승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은 번뇌, 세속의 공간에 살고 있는 깡패들 역시 버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품고 가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성(聖)과 속(俗)은 본래 '하나' 이기 때문이다. 후속 편인 〈달마야 서울 가자〉 역시 내용만 다를 뿐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영화는 절을 지키려는 승려와 절을 허물고 빌딩을 세우려는 깡패 사이의 치열한 대결과 갈등을 보여준다. 이들 간의 극적인 화해는 마지막 한 장면으로 압축되는데, 바로 높은 빌딩 위에 절을 짓는 것이었다. 이로써 세속, 번뇌를 상징하는 빌딩과 열반, 보리를 상징하는 사찰이 한 몸이 되었다.

우리들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피할 생각부터 한다. 그래서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인사가 유행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대승의 눈뜬 선지식들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진리와 붓다라는 꽃이 핀다고 역설하였다. 구상 시인도 '우음(偶吟) 2장'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였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그러니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내가 걷는 지금 이 길이 바로 꽃길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2020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현대불교신문에 깊은 애정과 물심양면 도움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지면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불기 2564년(2020) 경자년 새해를 맞아 온 누리에 부처님의 법 향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신년 특집 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더욱 밝아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 발전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연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본 사	T. 02)2004-8216	F. 02)737-0696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제 목
불기2564년(2020년) 경자년 신년 축하광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마감
2019년 12월 23일 월요일
jabi2018@naver.com

현대불교신문

종교인과세 신고대행 안내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우리 사찰에서 신도에게 받는 시주금(기부금)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스님이 사찰에서 매월 받는 보시금(급여, 개인적인 생활비)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라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월급받고 세금을 납부하고,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하고, 관련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가 신설된 것입니다.
스님이 한 분 계시는 단위 사찰도 해당이 되며,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교인 과세관련 신고 납부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우리 사찰에서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셔서 세법상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 2019년 종교인 과세 신고 납부일정

- **2019년 7월 10일까지** : 2019년 상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1월 10일까지** : 2019년 하반기 종교인 과세 원천세 신고 및 납부
- **2020년 2월** : 종교인 연말정산 실시
- **2020년 2월말** : 지급명세서 제출

※ 공익법인출연자산보고, 세무조사대행,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찰관련 세무신고대행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서서 "박성욱 세무사"를 검색하시면 사찰 종교인 과세관련 동영상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051-996-0308 / 010-9878-5716 박성욱 세무사**
*** 주소 : 부산 동래구 동래로 3, 태림빌딩 3층(온천동)**
※ 전국 어디서나 신청가능합니다.



세무사 박성욱 사무소